

사설

‘신도교육’ 기대와 우려

조계종의 신도교육 의무화 사업이 다음 달부터 시작된다. 포교원에 설치된 신도교육위원회는 전면적인 실시에 앞서 전국의 150개 사찰과 지역에서 우선 실시하기로 18일 결정했다. 9월부터는 모든 사찰에서 신도교육을 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제정한 신도기본교육 시행령에 따르면, 신도들은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수계를 받을 수 있다. 사찰의 신도교육 실시를 독려하기 위해 각종 혜택도 부여하기로 했다.

신도기본교육 시행령을 마련함으로써 신도의 교육 체계를 마련했다고 본다. 그 동안 조계종은 교육받은 신도의 배출, 이를 통한 신도의 조직화, 나아가 기복불교를 극복해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었다. 그래서 시행령의 제정은 조계종의 새로운 모습을 기대할 수 있는 단초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부작용도 적지 않을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불교의 교육은 교재 몇 권 떼고, 소정의 과정을 이수했다고 완수되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삶의 방향을 송두리째 바꾸는 변화, 깨달음과 보살행의 발원을 세우고 실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갈 때 비로소 교육이 시작된다고 본다. 교육은 강의실에서의 강의와 책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스님과 나누는 대화중, 도반의 몸짓에서도 배우고 익히기 스며 있다. 이 점을 유념해 ‘담힌 교육’이 되지 않도록 다양한 교육 방법의 개발도 뒤따라야 한다.

특히, 신도기본교육의 시행이 불교에 대한 우호층을 와해시키는 결과를 경계해야 한다. 불교는 다른 종교와 달리 들어오는 문턱이 높지 않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이것을 불교의 단점이라만 보아서는 안 된다. 1년에 한 번 사찰에 가는 사람일지라도 불자가 아니라고 내치지는 것이 불교이다. 신도교육의 의무화가 자칫 불자와 비불자를 평가하기 하듯 나누어지는 상황이 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요청된다.

아울러 불교 우호층을 넓히는 일에도 소홀함이 없기를 바란다. 불교문화화를 통해 삶이 연기적 관계임을 확인케 하고, 사찰의 지역사회 활동을 강화해 불교와 중생들의 삶이 떨어진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보여줘야 한다.

백제불교회관 역할 크다

한국의 불교신도가 1천만이나 2천만이나 하지만, 실제로 부처님을 믿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익히며 실천하여 깨달음의 수행을 생활화하고 있는 불자가 얼마나 될까? 어떤 단체 어떤 상황에서 참 불교신도를 얼마만큼 찾아낼 수 있을까?

포교는 불교의 생명이다. 새 시대는 지식사회로 나아가고 있는 현실이다. 불교 포교는 어쩌면 그 방법을 과학화, 제도화, 구체화해서 실천할 수 있도록 한다면 참으로 무궁무진한 가치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조계종 포교원이 불교세가 미약한 취약지역인 대천과 인천에 포교거점을 마련하고, 불교 활성화 계획을 세웠다.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2월 대전의 백제불교회관을 개관하고 운영위원장 장곡스님의 원력으로 30여 시행단체가 입주하여 포교 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한다. 백제불교회관 건립에 하나로 뭉쳐서 지역불교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는 것은 참으로 괄목할만한 대작불사이며, 의욕을 가지고 시도하는 만큼 모범적인

사례를 보여주길 바라는 마음이 적지 않다.

외국의 경우, 대만의 도심포교활동을 주목해볼만 하다. 산중과 스님 위주의 수행·포교에서 신도들의 적극적인 도심포교·복합발명의 건립으로 도심의 포교거점이 날로 확산되고 있으며, 스님들과 신도들의 협력으로 도심의 신도 폭이 어린이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각종 직장의 수행단체로 활성화되고 있다.

그 동안 수행단체는 종단이나 사찰의 지원에 크게 의존하고 있었으며, 스님들은 신도를 필요로 하면서도 수행단체는 경원시하는 경향이 많았다. 그러나 이번 새롭게 태어난 백제불교회관에서는 입주한 수행단체들이 자립성을 발휘하여 재정적 토대를 확립하고, 합리적 의사 결정을 통한 포교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하여야 할 것이다. 스님들도 지도자로서의 법력을 아낌없이 발휘하고 지원하여 승가·재가의 바람직한 관계를 정립해 사찰과 지역사회 발전에 전념이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150개 사찰서 신도교육

조계종, 5월14일부터... 불교역사·교리등 가르쳐

조계종 신도교육이 5월 14일부터 전국 150여곳의 지역과 사찰에서 시범 실시된다.

조계종포교원(원장직대 상운) 신도교육위원회는 18일 회의를 개최하고 △기본교육 시행령 △기본교육 실시 지침서 △신도교육일정 등을 확정했다.

신도기본교육 시행령에 따르면, 조계종 재적사찰 신도들은 소정의 입문절차를 마치고, 신도기본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신도교육 내용은 △불자예법 및 불교의례 △부처님 생애 △기초교리 △불교역사

△수련회 △불자의 길 △사찰의 이해 △철야정진 등이며, 6개월 동안 12회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수계를 받아야 신도증을 획득하게 된다.

신도교육 시범 기관은 지정 사찰과 포교원에 신고된 사찰의 연합교육기관, 포교원장이 인가한 전문교육기관에 한한다. 또 교육자도 구별제를 수지한 승려와 군승 교법사 포교사 등 종단에서 인정하는 자격 품수자, 불교학 전공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신도단체 주요 임원으로 한정했다.

포교원은 신도교육 시범 실시를 희망하는 사찰의 추가접수도 받고 있다. 포교원은 시범 사찰에 대해 기본교육교재 50권 무상지원, 강사진 지원, 포교원 실무자 파견 기획 진행 평가과정 지원, 각종 서식 제공 등의 혜택을 부여할 방침이다. 문의 02720-7060.

포교원은 신도법개정을 통해 신도들의 기본교육을 의무화하여 9월경부터 모든 종단사찰에서 신도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김원우 기자 (www.kim@buddhapia.com)



한마음선원·혜조스님 전통등 경연 '대상'

부처님 오신날 봉축위원회는 18일 전통등 경연대회 심사위원회를 열어 개인부문 최우상이 '수양매화 나무용등'을 출품한 혜조스님, 단체부문에는 '나비등 과일등 별등' (사진)을 출품한 한마음선원을 최우수상 수상단체로 선정했다. 농인선원은 우수상, 진관사는 특선의 영예를 안았다. 개인부문 시상식은 27일, 단체부문 시상식은 29일 동대문운동장 연등법회에서 실시한다.

문화관광공부는 17일 문화재청장에 노태섭 예술국장을 승진 발표했다. 이어 중무실장에 박문석 기획관리실장, 중무관에는 김준영 중앙박물관 건립추진기획단장을 각각 임명했다. 권재진 기자

전신회-중신회 통합 움직임

전국신도회(회장 신진규)는 18일 "양분된 신도회가 존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전국신도회와 중앙신도회가 통합하여 종단의 대표신도회로 거듭나야 한다"는 의견을 조계종 총무원과 포교원, 중앙신도회에 제출했다.

전국신도회는 신도회 통합을 위해 △50년 역사성을 존중하여 전국신도회 명칭사용 △양측의 '신도회' 인원 전원 사퇴 △각 5명의 대표로 통합추진위원회 구성 등의 방안을 제시하고 5월 15일까지 회신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원우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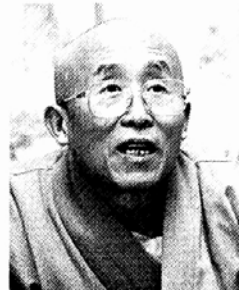
“교과서 왜곡·침략 참회”

민족정기선양협의회(공동대표 의장 월주)는 23일 세종문화회관 세종홀 소연회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일본역사교과서 왜곡을 규탄하는 한편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의 증언을 통해 일본정부의 사죄를 촉구했다.

민족정기선양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역사교과서 재수정은 물론 침략의 죄과를 진실하게 참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김순택 할머니 등 나눔의 집 위안부 할머니 10명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바른 역사를 세우는데 온 국민이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영우 기자

인사부

봉선사 조실 추대된 월운스님



“대중의 안목 넓히기 주력”

“조실이란 말은 주실(籌室)에서 유래했습니다. 인도의 우바국다 존자가 많은 사람들을 제도했는데, 한 사람을 제도할 적마다 산가지(簍) 하나씩을 방에 쌓았다고 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제도했는지 사방 여덟 자(방丈) 방에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방장화상의 주석처를 주실이라 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조실(組室)’로 바뀌었지요.”

20일 조계종 제25교구본사 봉선사 조실로 추대된 월운스님은 조실이란 말의 의미를 되새기는 것으로 소감을 밝혔다.

“각각종색 선사(귀경문)를 통해 ‘조실은 대중의 안목을 열어주는 일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또 통도사 큰방 주련에 쓰여있는 어느 고인의 가르침에 따르면, 진정한 조실은 세속의 물정을 꿰뚫어 볼 줄 알아야 한다(善知識能知物情)’고 했는데...”

스스로를 안목 조실이 아닌 명자(名字) 조실이라고 생각한다는 월운스님은, “스님들이 출가를 했다는 생각을 잃어버린 데서 한국불교의 문제가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소림과 관련된 해스님은 “하고 싶어도 차례대로, 하기 싫어도 차례대로 하는 불가의 오랜 전통을 되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모두가 자기의 조실이 되어야 합니다. 요새 나는 ‘월운아, 살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름에 깃달리느냐. 마무리 잘 하고 가자지’, 이런 소리를 듣습니다.”

동국역경원장도 겸하고 있는 월운스님은 팔만대장경 한글전산화사업 만큼에는 욕심을 감추지 않는다.

“월 1천원을 후원할 3만명을 모으는 게 남은 일입니다. 원을 세우고 동참할 인연을 모으는 운동이 없이는 불교의 실감은 없습니다.” 정성운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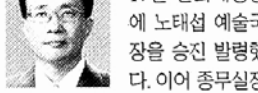
남북협력기금 53억 지원

통일부, JTS등 11개 단체

통일부는 19일 한국JTS 등 10개 민간단체의 11개 사업에 대해 남북협력기금에서 52억9천900만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공동회장 박태스님)와 한국JTS(이사장 법륜)은 각각 1억6000만원, 6억9600만원을 지원받아 금강국공공장 운영에 쓸 예정이다. 김재경 기자

문화재청장 노태섭씨



문화관광공부는 17일 문화재청장에 노태섭 예술국장을 승진 발표했다. 이어 중무실장에 박문석 기획관리실장, 중무관에는 김준영 중앙박물관 건립추진기획단장을 각각 임명했다. 권재진 기자

“분단예토를 통일정도로”

정대스님 대북봉축인사

종단협의회 회장 정대스님(조계종 총무원장)은 19일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북녘 불자들에게 보내

는 봉축인사말’을 북한의 조선불교도연맹에 보내고 ‘더 이상 분열된 민족으로 남지 않겠다’는 굳은 서원을 세우자’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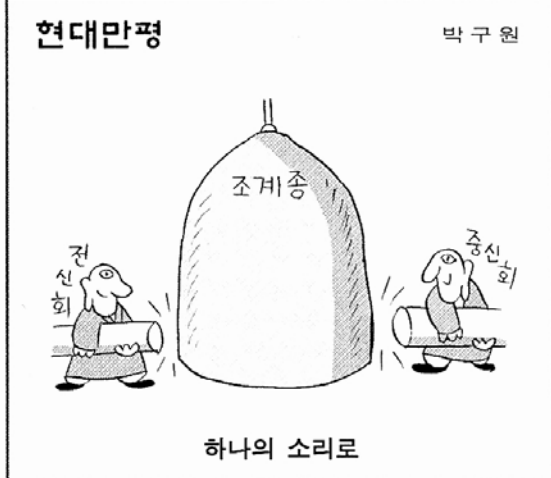
정대스님은 인사말에서 “위법망구의 정신으로 불국정도의 서원을 세우고 분단예토를 통일정도로 일궈나가는 길에 힘을 다 하자”고 밝혔다. 정성운 기자

“고통받는 이에 희망을”

천주교 봉축 메시지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천주교 주교회의는 20일 축하 메시지를 발표했다. 주교회의 종교간대화위원회 위원장 최기산 주교는 메시지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도움을 주고 희망을 불러내는 일에 불자 여러분과 천주교 신자들이 함께하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정성운 기자



하나의 소리로

불기2545년 부처님 오신날을 봉축합니다.

처음도 좋고 끝도 좋은 아름다운 세상을 위하여

불자를 위한 불교 전화기 부루나폰

국내 최저 가격에 기능은 최고의 발신자 정보표시 전화기

잠깐 자리비운 사이 중요한 전화 놓친적 없으십니까? 이제 부루나 폰 (Buruna phone)이 해결해 드립니다.



●부루나(BURUNA) 부루나 폰자는 부처님으로부터 성불 제이라는 칭호를 받았다. 그의 본명은 푸르나 마이트라리아 푸트이며 푸르나는 “충만한” “만족된” 뜻으로 지애로운 마음으로 충만한 여성의 자식 이렇다. (滿慈子)(滿慈子)

- 2001년 5월 1일 ~2003년 3월 31까지 전화사용요금의 5% 할인혜택
- 발신자 번호를 199개까지 기억 (부재중 전화모임)
- 콜백기능과 재다이얼기능
- 장거리 지역번호 자동입력 장치
- VIP 저장기능 및 단축다이얼 10개 저장
- 선·후불카드번호 저장 및 다이얼, 개인암호
- 외부로 건 전화번호 및 통화시간을 45개 까지 기억기능
- 핸드폰 및 시외전화 잠금장치

빅히트 일본수출품



부루나폰
BURUNA PHONE
충남당문외 (주)리치웨이/(주)누보텍
TEL: (02)2271-1020(대)
FAX: (02)2271-1025